

#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막막함에서 자기긍정으로 변화하기

김성경\*

## 초 록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청소년 중 긍정적 학교적응을 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과정으로 적응하는지를 탐색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북한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하였고,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한국사회에 입국한지 2년 이상이 되었고 학업 및 다양한 학교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교사 및 친구들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학교에서 질서와 규칙 준수, 학교 애착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는 북한이탈 청소년 6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하였다.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대해 총 98개의 개념이 나타났고, 이를 18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로 유목화 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모든 경험은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라는 현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막막한 새로운 발걸음'이고, 맥락적 조건은 '어려운 사회적 관계'와 '힘겨운 학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또래 모방하기', '학습 향상 노력하기'와 '진로탐색 집중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와 자기 지지의 중재로 '학교에 융화되며 점차 성장하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 참여자의 학교적응 과정을 분석하면, '새로운 시작 단계'에서 '수용 단계'를 거쳐 '극복 단계'를 통해 결국 '성장 단계'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루어졌다.

주제어: 북한이탈 청소년, 학교적응, 긍정적 학교적응, 근거이론, 질적 연구

\*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sukyki@naver.com

## I. 서 론

통일부(2017)에 따르면, 1998년~2017년 3월말 현재 누계 북한이탈 주민수 30,215명 중 10세~19세 청소년 수는 3,51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입국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한 숫자이므로 현재 청소년 수가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2014년 말 8.3%에서 2017년 초 11.6%를 차지해 북한이탈 청소년 수와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의 증가양상은 북한 주민의 탈북양상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북한이탈 주민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안전한 탈북 경로가 개발되면서, 가족 단위 탈북과 다양한 계층의 주민의 탈북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의 구성은 다양해지고 있다(이향규, 2007).

더불어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 관련된 학문적 관심도 증가하여 사회적응 또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논문이 다양해지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사회 적응과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형성된 정체감과 남한사회의 사고방식과의 차이로 인해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양영은, 배임호, 2010; 유가호 외, 2004; 이부미, 2012), 어린 나이에 탈출과 도피, 은신, 방황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입었거나 정규 교육 경험이 현저히 적어 학교에서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나지영, 2014; 박윤숙, 윤인진, 2007; 이부미, 2012; 이수연, 2008)가 대부분이다. 또한 김미숙(2006)은 북한과 다른 남한의 학제 및 수업연한의 차이, 상이한 교과목, 교육내용의 차이, 연령차이, 교수학습 방식의 차이 등 학교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위험요인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탈북을 통해 이주해 온 상황에서도 남한에서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탈북으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 청소년 개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는 적응을 잘 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에 대한 탐색은 매우 극소수이지만 발표되고 있다(백혜정 외, 2007; 신미영, 김병수, 2014).

다양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심리적으로, 학업적으로 적응해서 발달과업을 잘 성취하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적응 청소년으로 부정적 인식과 낙인이 부여될 우려가 있다. 남한사회에 들어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어떻게 심리적으로 적응해 나가는지에 대한 탐색과 분석이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학업적응의 초기과정에 집중되어 있어(이부미, 2012) 학교적응을 과정적으로 살펴보지 못하였다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경험하는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은 어떠한가?’라는 연구문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탈북 후 남한 학교에서 긍정적 적응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학교 전학 후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자기인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 중 긍정적 학교적응을 하는 청소년들은 어떤 과정으로 적응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보다 긍정적으로 지원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문헌 고찰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개념

북한이탈 청소년은 복합적 개념으로 북한이탈 주민 중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 북한이탈 청소년은 탈북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르면, 북한이탈 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리고 동법 제24조의2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을 따로 ‘탈북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 있어, 탈북청소년이 더 정확한 법적 용어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8조의2에 따르면, 탈북청소년의 연령을 24세 이하로 보고 있어, 탈북청소년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을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의 정의에 따른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며, 탈북청소년보다는 범명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북한에서 출생하여 북한사회의 생활경험이 있고 남한으로 이주한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한다.

## 2.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거 수십 년간 학교적응의 개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어 왔으며, 최근 학교적응의 개념은 구체적이며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은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애착, 연대, 연결성 또는 참여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고(Libbey, 2004),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만족도, 즐거움, 교사에 대한 애착으로 설명되기도 한다(Simons-Morton & Crump, 2003). 또한 임정하 외(2014)는 청소년이 학업 유능감을 갖고 교사 및 친구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생활에서 질서와 규칙을 잘 지키려 노력하는 행동으로 설명한다.

학교적응이라는 용어가 학교부적응과 구분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내포하는 개념이지만,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학교적응(positive school adjustment)의 개념을 활용하고자 한다. 긍정적 학교적응(positive school adjustment)이란 청소년이 학교에서 보이는 긍정적 적응산물(positive adaptation outcomes)로 설명되며(van Geel & Vedder, 2011; Steinberg, 1996), 학업 및 다양한 학교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교사 및 친구들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학교에서 질서와 규칙 준수, 학교 애착 등의 적응산물을 보일 때 긍정적 학교적응이라고 한다(Steinberg, 1996).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또는 학교부적응을 탐색하는 연구를 보면(김종국, 2007; 이수연, 2008; 임정하 외, 2014), 개인 내적 요인(연령, 신체적 조건, 건강수준, 남한 거주기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대처 등), 가족 요인(친부모와의 동거여부, 부모자녀 관계 등), 학교 요인(학교유형, 학교성적, 친구관계, 남한 친구의 역할, 교사의 관심, 교육정보) 등 다체계적 요인이 학교적응 또는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난다(김애진, 정원철, 2011; 김종국, 2007; 신미영, 이병수, 2014; 이수연, 2008).

김애진과 정원철(2011)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북한이탈 청소년은 남한의 학교에 편입해 와서 언어의 차이, 학습과 의사소통 및 학업수행의 곤란 등으로 인해 답답함과 위축을 느끼게 되지만, 친구의 도움, 가족과 선생님의 지

지를 통해 노력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수연(2008)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장애요인과 보호요인으로 탐색하였다. 장애요인으로는 수업방식과 영어와 수학 등 학업에서의 어려움, 학력지체 현상의 누적, 또래문화의 갈등, 남한 청소년의 편견과 차별,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 등이며, 보호요인을 개인 내적 보호요인과 환경적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개인 내적 보호요인은 적극적인 성격과 긍정적인 사고이며, 환경적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파악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는 함께 입국한 부모, 새터민 친구, 동아리 친구, 학교 친구와 가족, 하나원 교사, 교사, 종교단체 봉사자, 이웃 주민 등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순미(2010)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남한 청소년의 역할을 탐색하여, 남한 청소년(멘토)과 북한이탈 청소년(멘티) 간의 멘토링은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 학교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연보라, 김경근, 2017)에서는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이나 학교적응 양상은 고정적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에서 개인차는 존재하고,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서의 변화는 사회자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달려있음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남한 중고등학교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생소한 남한사회의 문화적 충격을 직접적으로 겪는 중고등학교 안에서 긍정적으로 적응하는 과정과 북한에서의 삶을 비교하며 용해해 가는 자기성장의 인식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는 본 논문주제에 적합한 대상자를 표집하는 유의적 표집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표집은 2단계로 하였다. 1단계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생활경험이 있으며 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하였고, 한국사회에 입국

한지 2년 이상인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우선 기관실무자를 통해 3명을 추천받았고, 추천 받은 북한이탈 청소년을 통해 그 친구 또는 선후배를 다시 추천받는 스노우볼 표집방법(snowball sampling)으로 표집하여 총 15명을 표집하였다. 2단계는 15명의 북한이탈 청소년 중 학교적응을 긍정적으로 이루는 청소년을 선별하기 위해, 학업 및 다양한 학교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교사 및 친구들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학교에서 질서와 규칙 준수, 학교 애착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연구 참여자로 총 6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추상적 범주로서 핵심범주는 이론적 포화의 지표가 되며 연구자는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 이론적 표본추출을 멈추는 시점으로 6명 째에서 인터뷰를 종결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출신지역은 함경북도, 양강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탈출하기 쉬운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접한 지역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 서울 소재 종합대학의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에 대한 보장과 그 방안을 인정받았다. 면접을 실시한 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이며, 개별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참여자와의 협의 하에 시간을 선정하였고, 모든 면담은 일대일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최초 면접에 들어가기 전 연구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관련된 내용이 기록된 연구 동의서를 제시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점 등 구체적인 참여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접 내용의 녹음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으며, 연구의 목적과 방법,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점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면접과정에서 고통과 슬픔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말하기 힘든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등 면접 중단가능성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다각화(triangulation, 삼각화)의 방법으로 청소년 대상 심층면담기록 외에 현장노트 및 메모, 그리고 부모 및 하나센터 선생님과의 전화면담 등을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14세에서 19세까지였고, 중학생 3명, 고등학생 3명이었다. 표 1은 연구 참여자의 연령, 성별, 학년, 북한 탈출시기 및 남한 입국시기, 가족사항, 북한 출신지역 등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표 1

## 연구 참여자의 특성

참여자	연령 (만)	성별	학년	북한 탈출시기	남한 입국시기	가족	북한 출신지역
참여자 1	16	여	중3	2011. 11	2012. 12	모(주부), 남동생(어린이집)	양강도
참여자 2	17	남	고1	2011. 9	2012. 1	부(공장 직원),모(교회 직원), 누나(고2)	함경북도
참여자 3	15	여	중2	2012. 12	2013. 1	부(공장 직원), 모(무직)	자강도
참여자 4	19	여	고2	2011. 3	2012. 4	부(트럭기사), 모(식당), 여동생(중3)	양강도
참여자 5	17	남	고1	2013. 2	2013. 2	부(공장 직원), 모(식당), 형(고3)	함경북도
참여자 6	14	남	중1	2013. 3	2013. 3	부(학원 강사), 모(주부), 동생(초5)	양강도

## 2. 분석방법

본 연구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대상자의 면담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개방 코딩, 축 코딩, 선택 코딩으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Strauss & Corbin, 1998; 김소선, 2003). 부호화과정은 세 단계로 구성되는데, 우선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개념화하고 범주화시키는 분석 작업인 개방 코딩(open coding)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으로 축 코딩(axial coding)으로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나 하위범주들을 패러다임에 따라 연결시키는 절차이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selective coding) 과정으로 핵심 범주를 선택하여 핵심범주와 다른 범주들을 연결시킨 관계에 대한 진술문을 만들고 그러한 관계 진술문에 대해 확인하면서 범주를 체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개방코딩 단계는 근거자료를 통해 개념을 발견하고 명명하여 유사하거나 의미상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내용을 하위범주로 묶은 후 범주화 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의미 있는 개념과 내용을 위해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음 축코딩 단계에서는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속성과 차원수준에서 하위범주와 연결시키고 범

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범주분석을 통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과 자기인식 변화과정에서 현상과 연관된 문제, 사건,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도식화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의 엄격성 확보를 위해 연구자 외에 부호화 과정 및 분석과정에 근거이론 전문가 2인이 함께 참여하는 동료 연구자의 검토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 제시하는 패러다임(Strauss & Corbin, 1998)으로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을 포함한 모형을 도식화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을 파악하였고, 과정분석을 통해 구조적 상황의 틀 속에서 이러한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 개념의 범주화

본 연구 참여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8개의 개념과 18개의 하위범주, 11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2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개념의 범주화: 개방코딩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구조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기대와 남한에서 새롭게 공부를 따라가야 한다는 두려움을 동시에 가짐.	두려움과 기대 사이	막막한 새로운 발걸음	인과적 조건
학교수업이나 학교생활에서 이는 것은 없고 친구들과 공통점도 없어 막막함과 무능력함을 느낌.	막막함 인식		
한동안 선생님들의 말씀 거의 이해못함. 친구들의 언어는 은어 및 영어 사용으로 외국어 같았음.	소통의 어려움	어려운 사회적 관계	맥락적 조건
친구들의 옷차림, 갖고 다니는 학용품이 생소함. 친구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잘 몰라 답답했음.	또래와 이질감 느낌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습의 부족 경험, 수업시간에 거의 이해 못하고 앉아 있었음.	힘겨운 학업	힘겨운 학업	

개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구조
말투, 외모, 왜소한 체격 등에서 수치심 느꼈지만 학교에서 내 모습을 인정하려고 노력하였음.	자기 모습 인정하기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	중심 현상
학업에 대한 두려움, 학교문화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교사와 친구들에게 잘 모른다고 밝힘.	두려움 인정하기		
부모님과 같이 있어 편하고 많이 의지됨. 담임선생님의 따뜻한 지도, 배려가 큰 위로가 되었음. 좋은 친구 사귀면서 긍정적 반응 경험함.	가족, 교사 친구의 지지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	중재적 조건
하나센터와 교회가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줌.	지역기관의 지지		
북한 출신을 인정하고 당당히 말함. 나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	자기 지지하기	자기 지지하기	
친구들 하는 것은 다 따라하려고 노력하였음. TV 열심히 보면서 친구들의 이야기에 끼려고 노력함.	또래 모방하기	또래 모방하기	작용/ 상호작용 전략
하나센터에서 연결해준 멘토선생님, 교회 지원, 학원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이용함.	학습자원 활용하기	학습향상 노력하기	
친구, 선생님께 많이 의지하고, 멘토선생님의 학습지도, 인터넷 강의를 활용함. 대학은 특례지원으로 진학이 가능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함.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하기		
내가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진로목표를 향해 나아감.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있음.	진로탐색 집중하기	진로탐색 집중하기	
학교활동에 적극 참여함. 친구와 더 많이 어울림.	학교활동 능동적 참여하기	학교에 융화하기	결과
학교가 좋아짐. 학생임을 감사함.	학교애착		
내가 남한학교에서 이만큼 따라 가는 것에 대해 장하다고 날 다독임. 대견한 나를 알게 됨.	자기가치 인지하기	성장하는 나	
장래 희망을 실현하는 꿈을 갖고 있음. 목표의식을 가지고 꿈을 이루며 성공하고 싶음.	희망 바라보기		

## 2. 패러다임 모형: 축코딩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출하고자 표 2의 개방코딩의 결과를 기초하여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재조합하여 축코딩을 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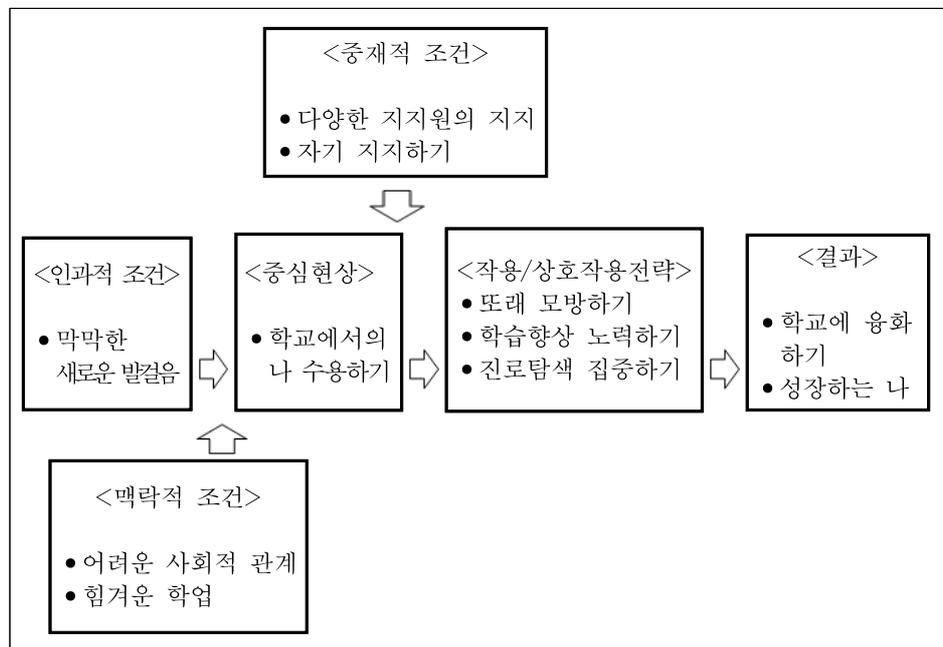


그림 1. 패러다임 모형: 축 코딩

축코딩은 개방코딩을 통해 도출된 범주들 간의 관계를 재조합하여 범주들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는 구조를 보여준다(Strauss & Corbin, 1998). 패러다임 모형은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 범주 및 하위 범주의 속성과 연결 등 복잡하고 다양한 분석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현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완벽에 근접한 설명을 하기 위해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지속적으로 발달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며, 패러다임 모형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로 연결 지워지는 구조를 보여준다.

## 1) 인과적 조건

근거이론에서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사건을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며(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인과적 조건은 ‘막막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타났다. 하위범주로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와 ‘막막함 인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1) 막막한 새로운 발걸음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에서 학교를 다시 다닌다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동시에 학업과 학교에 대한 생경감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북한에서 탈출한 후 중국, 라오스, 태국 등 제3국을 전전하면서 학업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에 대해 기쁨과 기대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서고, 학교 환경의 차이, 교실 분위기가 낯설어 막막함을 경험했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막막한 새로운 발걸음’으로 통합되고, 하위범주로는 ‘두려움과 기대 사이’와 ‘막막함 인식’으로 제시되었다.

#### ① 두려움과 기대 사이

“탈북 후 중국에서 숨어 있다가, 2년 만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는데 그동안 정말 공부하고 싶었지요... 그러나 오랜만에 하는 공부라 따라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먼저였지요.” (참여자 4)

“라오스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해 뭔가 뒤쳐지는 듯 했는데, 여기 와서 학교를 다니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전학 와서 처음에는 엄청 두려웠어요.”(참여자 1)

#### ② 막막함 인식

“남한과 북한 학교 수업은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 공부를 못하지는 않았는데, 여기 오니까 수업내용과 교과서가 너무 달라 제가 바보 같았어요. 너무 막막해 며칠

동안 집에서 많이 울었어요.” (참여자 3)

“처음 교실에 들어가 놀랐지요. 뭔가 좀 학생들이 풀어졌다고 할까...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제멋대로인 것 같고, 그리고 교복도 아무렇게나 입어서 그냥 걸친 것 같았어요... 앞으로 이 애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참여자 5)

## 2)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현상을 발생하게 하는 사건이며,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특수한 조건들이다. 맥락이란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써 인과적 조건에 의하여 중심현상을 일으키는 정도의 차이로 나타난다. 작용/상호 작용 전략을 조절하고, 실행하며, 어떤 특정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지는 구체적인 조건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어려운 사회적 관계’와 ‘힘겨운 학업’이 맥락적 조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사회적 맥락으로서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하위범주로는 ‘소통의 어려움’, ‘또래와 이질감 느낌’, ‘힘겨운 학업’이었다. 맥락적 조건인 ‘어려운 사회적 관계’와 ‘힘겨운 학업’의 수준에 따라 중심현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어려운 사회적 관계

연구 참여자들이 전학 와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사소통하기와 친구 사귀기로 나타났다. 전학 와서 한동안 선생님들의 말씀을 거의 이해 못하였고 친구들의 언어는 은어 및 영어 사용으로 외국어 같아 소통이 어려웠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친구들의 옷차림과 학용품이 생소하고, 쉬는 시간마다 얘기하는 연예인을 잘 몰라 사회적 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했음을 제시하였다.

#### ① 소통의 어려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 친구들의 말이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영어를 섞어 써서 그래요. 언어만 북한과 다른 게 아니라 말투도

너무 빨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참여자 3)

“제가 입을 열면 북한말과 억양이 나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래서 처음 전학 와서 담임이 부반장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는데, 두 달 정도 말하지 않았어요. 한 학기동안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중학교 친구들은 제가 조용한 애인 줄 알아요.” (참여자 4)

## ② 또래와 이질감 느낌

“남한 애들은 옷차림도 다르고, 학용품도 달라 놀랐어요. 친구들도 나에 대해 ‘애는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참여자 3)

“친구 사귀기가 제일 어렵지요. 남한 애들은 뭐랄까 의리가 좀 없는 거 같고... 뒷담화도 많이 하고... 북한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의리가 있달까... 애들 하는 말도 어려운데, 행동도 좀 다르고 연예인 얘기 많이 하고... 남한 애들 이해하고 친구 사귀는데 한참 걸렸어요.” (참여자 5)

## (2) 힘겨운 학업

연구 참여자들이 전학 이후 또 어려웠던 부분은 수업과 교과내용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오랜 기간의 교육공백, 남한과 북한의 교육 내용 및 교과서의 차이, 교과목의 차이 등의 이유로 남한 학생들에 비해 기초학력의 부족을 경험했다. 특히 역사 수업의 경우 완전히 다른 역사내용을 접함에 따라 정체성 혼란까지 경험함을 제시하였다.

“북한에서 나온 이후 공백 기간이 좀 있었잖아요. 기초가 안 되니까... 학년을 내려 전학했는데도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 전혀 모르겠고 교과서의 내용도 뭐 소린지... 영어와 수학이 힘들었어요. 기초가 안되다 보니 너무 어려워요. 기초가 없어 열심히 해도 잘 안되더라구요.” (참여자 1)

“역사는 북한에서 배운 거랑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 역사책 보면, 북한 역사교육은 정말 이상한 거고 거짓 같고... 많이 힘들었어요, 잘 몰라 물어보면, “너 어디서

왔냐?” 물어요.” (참여자 2)

### 3) 중심 현상

중심현상이란 연구 참여자가 일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반복적으로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이는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준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은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록 학력 격차, 교우관계의 어려움, 언어의 생소함, 외모의 차이 등으로 막막함과 무능함을 경험하지만, 다시 추슬러 자신 모습 인정하기의 노력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에 전학 오으로써 홀로 학교생활을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느끼고 그동안 북한에서의 삶과 사회적 자본이 별로 남한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힘들어했다. 외모, 말투, 체격의 차이로 열등감과 현실 앞의 두려움을 가졌지만, ‘자기 모습 인정하기’와 ‘두려움 인정하기’를 하며 동시에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극복하려는 의식인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를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중심현상으로 명명하였다.

#### ① 자기 모습 인정하기

“친구들과 공통점은 없고 공부는 안되고 그래서 불안하고 힘들었어요. 말투가 달라 말도 잘 못하고 내 키가 너무 작아서... 더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러다 생각을 바꿨어요. 난 소학교 때 총알이 옆으로 날라 와도 피했다. 그간 말투와 키 갖고... 그래서 그냥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지금도 키가 자라지 않아 고민이지만 할 수 없지요.” (참여자 6)

“처음 학교 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실수로 나를 탈북자로 소개하여 당황하고 한숨 나오고... 애들은 날 신기하게 봤어요. 그 다음에 그냥 다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 키가 많이 작잖아요. 외모가 많이 다른걸요.” (참여자 2)

## ② 두려움 인정하기

“중학교인데도 시험 때가 되면 다들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난 북한에서도 공부를 별로 안했거든요. 나가서 노동하고 집에서도 일하고... 그래서 담임에게 말했어요. 공부가 너무 두렵다고... 그랬더니 우리 반 1등 옆자리로 자리 바꿔주어 도움 많이 받았어요.” (참여자 4)

“처음에 차별받는 거, 그리고 느끼는 차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학교도 사회도 너무 냉정한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 난 부족하다 인정하자고... 내가 모르는 것 있으면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말하는 거 적었다가 집에 와서 컴퓨터로 찾아보고... 그랬더니 애들이 지네끼리 얘기 하다가 내가 옆에 있으면, 쉽게 설명했어요.” (참여자 1)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을 말하는데,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작용, 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범주를 뜻한다(Strauss & Corbin, 1998). 중재적 조건은 맥락적 조건과 비교할 때, 더 강하고 직접적으로 작용, 상호작용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이진숙, 조아미,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라는 중심 현상에 대한 중재적 조건으로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와 ‘자기 지지하기’가 도출되었다.

### (1)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적응 과정에서 가족, 선생님, 친구 등 사회적 지지와 교회 및 하나센터 등 지역 기관의 지지가 중심 현상인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가족, 교사, 친구의 지지

“엄마가 옆에 없었으면, 지금까지 건디는데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성공하려는 목표는 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는 제가 잘될 것이라고 믿고 계셔서... 그래서 저는 학교 열심히 다녀야 되요.” (참여자 1)

“전 처음부터 친구 사귀기 어렵지 않았어요. 동생 같은 애들인데, 잘 지냈어요. 개네들과 어울리면서 남한 말, 학교생활 배웠어요. 친구들 아니면 아직도 전 학교생활이 어려웠겠죠.” (참여자 2)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정말 좋았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수업 끝나고 도와주시고 좋은 학원 선생님도 연결해주시고... 담임선생님이 잘해주시니까 애들도 잘 해줬어요. 그 선생님은 인생의 사부랄까... 지금도 가끔 카톡해요.” (참여자 3)

② 지역 기관의 지지

“하나원에서 나와 지금 집으로 이사 올 때 교회 집사님들이 전기밥솥과 이불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집이 별로 없고 다 사야 했는데,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도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하나센터 선생님들, 복지관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돼요.” (참여자 3)

“중학교에 들어가 영어가 제일 힘들 때, 하나센터 선생님이 대학생 멘토언니를 연결해 주었어요. 그 언니가 2년 동안 영어와 수학을 가르쳐 주었지요. 멘토언니는 공부 뿐 아니라 남한 사람들 생각, 인터넷 쇼핑물도 알려주어 제일 도움을 주었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예요.” (참여자 4)

(2) 자기 지지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에 의지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지지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있었다. 막막하고 힘든 생활 중에서도 행실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며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며 긍정적인 다짐을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애들끼리 학교에서 많이 싸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바로 싸운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거의 싸우지 않는 거예요. 놀랐지요. 그래서 저도 화나더라도 싸움 걸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남한 와서 한 번만 싸웠어요. 이렇게 노력하는 내가 장했지요.” (참여자 5)

“나이 많지, 체격은 작지, 공부 못하지 하나 내세울 게 없었지요. 처음 1년 동안 학교를 매일 때려치고 싶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학년이 올라가서 내가 북에서 왔다는 것을 당당히 알리고 모르는 것을 묻고 도와달라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잘한 거예요...” (참여자 6)

## 5) 작용/상호작용전략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중심현상이 맥락적 조건 또는 특정 조건 아래서 존재하는 것처럼 현상을 다루고, 조절하며, 수행하고, 반응하는데 사용되는 전략으로 자연적이며 연속적으로 발생하며 목표 지향적인 속성을 지닌다(Strauss & Corbin, 1998). 따라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현상에 반응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취해지는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전략이다.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관찰에 따른 모방학습의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험은 ‘또래 모방하기’, ‘학습향상 노력하기’, ‘진로탐색 집중하기’로 나타났다.

### (1) 또래 모방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전략은 ‘또래 모방하기’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청소년문화에 적응하고 친구 사귀기 위해 쇼핑하기, 영화보기, 맛집 찾아다니기 등 친구들을 따라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또래 행동과 문화를 학습하고 적응하는 기제로 관찰과 모방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반 애들이 주말에 홍대 앞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더니 길거리 공연 구경하고, 떡볶이 먹고, 가게 구경하고... 사람은 너무 많고, 가게도 많고... 떡볶이는 너무 달고... 집에 와 너무 피곤했어요. 그렇지만 월요일에 학교 가서 애들에게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요즘에도 시험 끝나고 친구들 따라 다녀요...” (참여자 3)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TV 프로그램을 얘기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거든요. 무조건 무한도전과 런닝맨은 꼭 봐야 해요. TV를 보지 않으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보고 있어요...” (참여자 2)

## (2) 학습 향상 노력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전략 중 하나는 ‘학습 향상 노력하기’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직업을 가져 부모를 책임지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학습 자원 활용하기’와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하기’라는 하위범주로 도출하였고, 이를 ‘학습 향상 노력하기’ 상위범주에 통합하였다.

### ① 학습 자원 활용하기

“부모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하여튼 남한에 살기 위해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초가 부족하니까 교회에서 준 장학금을 학원비로 쓰고 있어요. 학원 원장님이 제가 새터민이라는 거 알아 학원비 할인도 해주셨어요.” (참여자 3)

“하나센터에서 대학생 언니 두 명을 멘토로 연결해 주어서 한 언니는 매주 수요일 만나 수학 가르쳐 주고, 또 다른 언니는 금요일에 영어 가르쳐 줘요. 학원은 내가 기초가 없으니까 도움이 안돼요. 멘토쌤 덕분에 성적 많이 올랐어요. 남한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참여자 4)

### ② 다양한 학습방법 활용하기

“어떻게 하든 공부해야 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 다하고 있어요. 우리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쉬는 시간에 물어봐요. 그리고 집에서 복습해요. 이투스와 EBS 인강도 듣고 있구요.” (참여자 5)

“전 대학 꼭 가야 해요. 부모님이 서포트 안되니까 공부해야 해요. 집이 좁아 저

녁 먹은 후 바로 구립도서관 가고, 애들이 좋다 하는 공부법도 다 따라해요. 공부일 기도 쓰고 공신닷컴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 1)

### (3) 진로 탐색 집중하기

연구 참여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 중 하나는 진로이며, 진로 고민은 많으나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스스로 탐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 특례입학제도를 알고 있었고, 이는 누릴 수 있는 혜택이며 하나의 생존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대나 법대를 가고 싶어요. 저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름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서... 북한에서는 말로 싸우는 것은 다 이겼어요. 돈 많이 벌어서 올 엄마, 아빠 도와야 해요. 특례입학이 있어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5)

“멘토쌤과 같이 알아봤어요. 간호학과 가려구요. 월급이 많다고 하고 우리 엄마 몸이 너무 안좋아 치료 많이 받아야 해서... 대학에 탈북자 전형도 있다고 하고, 학비로 무료라니까 대학 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서 대학 나와야지 않나요?” (참여자 4)

## 6) 결과

결과는 어떤 현상을 다루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중심현상이 조절되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에 융화하기’와 ‘성장하는 나’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려운 사회적 관계’와 ‘힘겨운 학업’의 맥락적 조건에서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라는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또래 모방하기’, ‘학습 향상 노력하기’와 ‘진로탐색 집중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자기 지지와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의 중재로 ‘학교에 융화되며 점차 성장하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교에 융화하기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점차 학교생활과 학교문화에 융화하는 경험을 마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한 학교에 처음 전학해 오면서 가졌던 막막함과 두려움을 극복한 후 경험하는 역동적 변화과정이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자료로부터 ‘학교 활동 능동적으로 참여하기’와 ‘학교 애착’이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는 ‘학교에 융화하기’라는 상위 범주로 통합하였다.

① 학교활동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잘 어울리고, 학교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해요... 저는 지는 게 싫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 수학여행도 엄마가 너무 비싸다고 했는데, 무조건 갔어요.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친구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제주도에 처음 가봤는데, 엄청 재밌었어요.” (참여자 1)

“제가 간호학과 가는 게 꿈이라 ‘간호&건강반’ 동아리에 들었어요. 많이 도움되는 거 같아요. 학교활동과 행사 참여에는 무조건 손들어요. 예전에는 늘 혼자인 것 같았는데... 이젠 친구들과 학교에 감사하지요...” (참여자 4)

② 학교 애착

“이젠 남한 학교 다니는 것 큰 어려움 없어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에도 많이 와서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좋아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는 게 보여요. 야자수업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잘 도와줘요. 학원보다 더 일대일로 배울 수 있어요...” (참여자 2)

“북한에서 제가 좀 낙천적인 성격이고 활발하다보니 싸움을 많이 했는데, 남한 학교에 와서 싸우고 담임쌤에게 불려간 후 조심하고 있어요. 여기는 기분 나쁘다고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학교 규칙 지키려고 노력해요. 어렵게 학교에 적응하고 있는데 잘 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참여자 5)

## (2) 성장하는 나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에 적응해 가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학교적응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부정적 경험을 희석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스스로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에 대한 자료로부터 ‘자기 가치 인지하기’와 ‘희망 바라보기’라는 하위범주를 도출하였고, 이를 ‘성장하는 나’라는 상위 범주로 통합하였다.

### ① 자기 가치 인지하기

“내가 남한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계속 불안했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한 학교에서 이만큼 따라가는 것 장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잘 지내는 것 쉬운 일 아니라고 생각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제 내가 장해 보여요. 그리고 엄마가 아프니까 동생을 내가 돌봐야 하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이지요.” (참여자 1)

“남한 학교에서 익숙해지면서 제가 좀 장해 보였어요... 처음 1년 동안 학교도 힘들고, 매일 보위부에 끌려가는 악몽을 꿴어요.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았을 때 교회 형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무서울 게 없다고... 여기 남한이라고.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전 나를 영리해요. 학교성적은 좀 낮지만, 더 좋아지겠지요?” (참여자 2)

### ② 희망 바라보기

“경찰이나 변호사가 되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바라보고 있어요. 경찰대 입학하는 거 쉽지 않지요? 2013년 남한에 왔을 때 비하면 지금 엄청 잘 지내는 거예요. 이제 말도 통하고 성적도 조금씩 올라가고... 학교 다니는 거 익숙하고... 앞으로 꿈을 향해 나가야지요.” (참여자 5)

“하나센터 친구 중에 지금 남한 학교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하는 친구 봤어요. 난 절대 절대 아니에요. 꼭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서 점점 더 잘 지내고 장래희망이 생겨서 좋아요.” (참여자 3)

### 3. 과정 분석

#### 1) 전개과정 분석

과정(process)은 구조적 상황 또는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전개 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며, 과정분석은 구조적 상황의 틀 속에서 이러한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김소선, 2003). 따라서 과정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존재하는 작용/반작용의 유형을 찾아 시간의 궤적을 분석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 참여자의 학교적응 과정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시작 단계 ⇒ 수용 단계 ⇒ 극복 단계 ⇒ 성장 단계 등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개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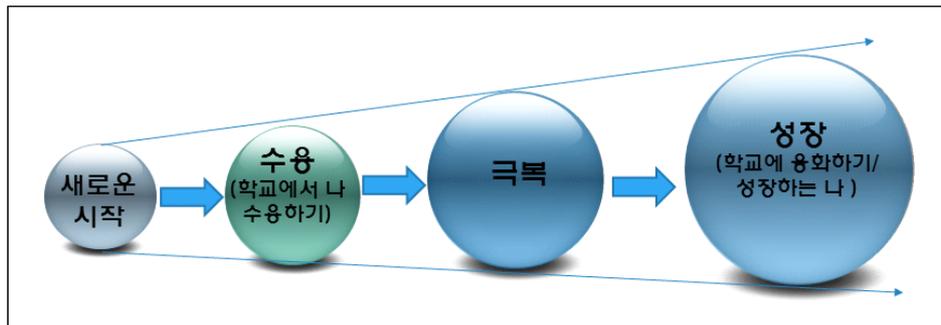


그림 2.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

#### (1) 새로운 시작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에 전학을 옵으로써 새로운 시작 단계를 경험한다.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에서 학교를 다닌다는 기대감과 흥분으로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동시에 학업과 학교에 대한 생경감과 두려움을 갖는다. 즉 학업에 대한 열망과 동시에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막막함과 무능력함을 반복적으로 느끼는 부정적 정서를 우선 경험하는 속성을 보인다.

## (2) 수용 단계

연구 참여자들이 남한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한 후, 홀로 학교생활을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능력 없음을 느끼고 그동안 북한에서의 삶과 사회적 자본이 별로 남한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힘들어한다. 힘겨운 학업에 부딪치며, 또한 소통이 안 되는 또래와 이질감을 느끼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주춤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 모습 인정하기’와 ‘두려움 인정하기’를 하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현실 수용의 경험을 보인다.

## (3) 극복 단계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생활의 어려움과 스스로의 위치를 인정하는 수용 단계를 거쳐, 관찰에 따른 모방학습의 경향을 보이면서 극복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탈북 청소년들은 ‘또래 모방하기’, ‘학습향상 노력하기’, ‘진로탐색 집중하기’ 등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 중재적 조건인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와 ‘자기 지지하기’ 등은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극복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 (4) 성장 단계

연구 참여자들은 수용 단계와 극복 단계를 거쳐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학교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부정적 정서를 희석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스스로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는 경험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에 융화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어려움을 극복한 후 경험하는 역동적 변화과정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 스토리 라인의 전개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자료를 근거이론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 청소년이 남한 학교에 전학와서 적응하면서, 변화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개됨을 알 수 있었다.

탈북 후 여러 나라를 거쳐 남한에 온 나는 그동안 정말 공부하고 싶었다. 그러나 막상 남한 학교에 전학해보니 엄청 두렵고 막막했다. 남한과 북한 학교 수업은 완전히 다르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지 않았던 나는 바보가 된 느낌이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말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안 들리니까 말하기도 어려워 친구들이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한 학기동안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다. 애들을 이해하고 사귀는데 한참 걸렸다. 그리고 수업은 정말 어려웠다. 영어와 수학이 가장 힘들었고, 역사는 북한에서 배운 거랑 많이 달라 또 힘들었다.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다. 그러다 부족한 거 인정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랬더니 학교가 좀 수월해졌다.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친구들, 담임선생님 덕분이다. 처음 전학 와서 만난 담임선생님이 정말 좋았다. 영어 선생님인데 수업 끝나고 도와주시고, 담임 선생님이 잘해주시니까 애들도 잘해줬다. 그리고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 그리고 하나센터 선생님들, 복지관 선생님도 나를 도와주었다. 남한 학교 다니면서 생각을 바꿨다. 노력해야 된다고. 친구들에게 배울 것도 많고 어른이 돼도 이 애들이 친구라고 생각하면 소중한데. 그리고 남한에 살기 위해선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교회에서 준 장학금을 학원비로 쓰고 있고, 이투스나 EBS 인강도 듣고, 공부일기도 쓰고 공신닷컴도 하고 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다. 부모님과 동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대학에 탈북자 전형도 있다고 하고, 학비도 무료라니까 대학 갈 수 있을 거 같다. 내가 남한 학교에서 이만큼 따라가는 것 장한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남한 학교 다니는 것 큰 어려움 없다. 중학교 때 친구들이 고등학교에도 많이 와서 친구들도 좋고 학교도 점점 좋아진다. 난 경찰이나 변호사가 되는 꿈이 있다. 그 꿈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려고 한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을 심층 분석하였다.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한국사회에 입국한지 2년 이상이며, 학업 및 다양한 학교활동에의 능동적 참여, 교사 및 친구들과의 긍정적 대인관계, 학교에서 질서와 규칙 준수, 학교 애착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진술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으로 연구 참여자 6명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하였다. 98개의 개념과 18개의 하위범주,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을 구성하였고,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과 관련한 논의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패러다임 모형을 요약해 보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의 중심현상인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의 인과적 조건은 ‘막막한 새로운 발걸음’이며, 맥락적 조건은 ‘어려운 사회적 관계’와 ‘힘겨운 학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중심현상을 조절하기 위해 ‘또래 모방하기’, ‘학습 향상 노력하기’와 ‘진로탐색 집중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활용하여 자기 지지와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의 중재로 ‘학교에 융화되며 점차 성장하는 자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과적 조건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한 학교에 전학 하면서 기대감과 동시에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막막함 및 두려움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구(김애진, 정원철, 2011; 이수연, 2008)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이에 학교에서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학교의 편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서비스와 맞춤형 학교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진은영 외, 2013).

셋째,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의 중심현상으로 파악된 것은 ‘학교에서의 나 수용하기’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겠다는 생각의 변화가 학교적응 과정의 중심 현상으로 밝혀졌다. 또한 자기 지지 또는 자기 강화가 중재적 조건 중 하나로 분석되어 스스로 인식변화가 중요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자기인식 개발 또는 자기강화 상담과 같은 개별상담 제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재적 조건은 ‘다양한 지지원의 지지’로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교사의 지지, 친구의 지지, 가족의 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또래 및 교사의 영향이 크다는 선행연구(김애진, 정원철, 2011; 정순미, 2010), 또한 학교 내 담임교사와 남한친구들의 대인관계의 질에 따라,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달라 질수 있다는 연구결과(문희정, 손은령, 2013)와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학교내외에서 북한이탈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사정과 동시에 지지망을 개발하는 서비스, 즉 멘토링 프로그램, 학습 도우미 등 교류 기회를 확대하고 친밀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패러다임 모형의 결과는 ‘학교에 융화하기’와 ‘성장하는 나’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 이후 학교 애착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면서 점차 학교생활과 학교문화에 융화하는 경험을 마주하며, 혼란을 경험하고 인식해가는 과정과 파장 속에서 자기 역량의 개발이 나오는 것으로 드러난다.

여섯째, 본 연구결과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남북한 사회의 지각된 문화 이질감이 크다고 해서 부적응적인 경험의 결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전학 초기에 유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인지하지만, 자기인식 과정의 차이, 담임교사와 남한친구들의 대인관계의 질, 자기성장 의지와 선택한 실천 방법 등의 차이가 학교적응과 부적응의 차이를 만들어 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스노우볼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긍정적 학교적응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학교적응 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학교 밖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참여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회고적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이 또한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의 4단계의 과정시간의 경과에 따른 적응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적응과정 중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밝혀낼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 학교적응 과정을 다양한 차원에서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미숙 (2006). 북한이탈학생들의 학교적응과 친구. **교육비평**, 21(1), 140-141.
- 김소선 (2003). 근거이론 연구방법의 이론과 실제. **간호학탐구**, 12(1), 69-81.
- 김애진, 정원철 (2011).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차이와 차이를 넘어 융화되기. **학교사회복지**, 21, 217-242.
- 김종국 (2007). **새터민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지영 (2014). 탈북 청소년의 구술생애담 속 가족의 해체와 탈북 트라우마. **통일인문학**, 60, 97-133.
- 문희정, 손은령 (2013). 한 대안학교 북한이탈청소년의 초기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희망을 찾아서. **교육연구논총**, 34(2), 127-149.
- 박윤숙, 윤인진 (2007).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과의 관계. **한국사회학**, 41(1), 124-155.
- 백혜정, 길은배, 윤인진, 이영란 (2007). 남한 내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준비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2), 183-211.
- 신미영, 이병수 (2014). 북한이탈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대안학교와 일반학교 비교를 중심으로. **담론** 201, 17(2), 63-93.
- 양영은, 배임호 (2010). 학업중단 북한이탈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복지연구**, 41(4), 189-224.
- 연보라, 김경근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탈북청소년의 사회자본과 학교적응 간 중단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1), 205-230.
- 유가효, 방은령, 한유진 (2004). 한국사회에서 탈북 아동,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 적응, 초기 사회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85-196.
- 이부미 (2012).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습경험 및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교육인류학연구**, 15(2), 23-57.
- 이수연 (2008). 새터민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청소년학연구**, 15(1), 81-113.
- 이진숙, 조아미 (2012). 근거이론으로 접근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정. **청소년**

- 복지연구, 14(1), 333-358.
- 이향규 (2007). 새터민 청소년 학교적응 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21, 193-207.
- 임정하, 김경민, 송지은, 나윤경, Tan Mei Xin (2014).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와 희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1), 29-57.
- 정순미 (2010). 북한이탈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남한 청소년의 역할. **윤리교육 연구**, 22, 301-319.
- 진은영, 강명진, 엄태완 (2013).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과정 연구: 무기력에서 희망으로의 거듭남. **청소년문화포럼**, 34, 121-152.
- 통일부 (2017). **주요통계자료**. <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에서 2017년 10월 24일 인출.
- Henry, K. L., Stanley, L. R., Edwards, R. W., Harkabus, L. C., & Chapin, L. A. (2009). Individual and contextual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 alcohol use. *Prevention Science*, 10(3), 236-247.
- Libbey, H. P. (2004). Measuring student relationships to school: Attachment, bonding, connectedness, and engagement. *Journal of School Health*, 74(7), 274-283.
- Simons-Morton, B. G., & Crump, A. D. (2003). Association of parental involvement and social competence with school adjustment and engagement among sixth graders. *Journal of School Health*, 73(3), 121-126.
- Steinberg, L. (1996). *Beyond the classroom: Why school reform has failed and what parents need to do*. N.Y.: Simon & Schuster.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Newbury Park: Sage.
- van Geel, M., & Vedder, P. (2011). The role of family obligations and school adjustment in explaining the immigrant paradox.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2), 187-196.

## ABSTRACT

### A study on the positive school adjustment process of North Korean immigrant adolescents: The changing process from helplessness toward self-positivity

Kim, Sung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ositive school adjustment process of adolescents immigrants from North Korea. From the use of grounded theory data analyses, 98 concepts, 18 sub-categories and 11 categories were observed in open coding. The core phenomenon of participants was conceptualized as 'self-acceptance within the school'. The causal conditions were conceptualized as 'helpless new steps' and the contextual condition were conceptualized as 'difficulties in social relationships' and 'low function in studying'. The mediating conditions (several social support sources, self-support) and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copying from peers, trying to improve learning strategies, active career explora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se processes, 'integration into school' and 'perceiving the growth of self' were found to be important.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regarding social work practices for the positive adjustment of adolescents from North Korea were presente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adolescents moved from North Korea, school adjustment process, positive school adjustment, grounded theory, qualitative research

투고일: 2018. 5. 30, 심사일: 2018. 8. 3, 심사완료일: 2018. 8. 13

---

\* Korean Bible University, sukyki@naver.com